



# 출판학 개척의 외길 남애 안춘근

한국출판학의 선구자이자 출판학문의 개척자인 남애 안춘근 선생의 추모 10주기 기념 학술제가 재단법인 한국출판학회 주최로 지난 7월 22일 개최됐다. 학술제는 제1부 추도식·참배, 제2부 기념 심포지엄, 제3부 남애출판저술상 시상식 등의 순으로 진행됐는데, 이 글에서는 제2회 남애출판저술상 수상자로 선정된 전 일본출판학회 회장 미노와 시게오가 발표한 '남애 안춘근 선생의 출판학'을 정리함으로써 남애 선생의 학문세계를 돌아본다. <편집자 주>

## 남애 안춘근 선생 연보

- 1926년 강원도 고성군 의금강면 출생
- 1946년 경기공립사범학교 수료
- 1955년 을유문화사 입사(1978년까지 기획부장, 주간, 상무이사 역임)
- 1956년 성균관대학교 정치학과 졸업
- 1958년 서울신문학원 신문과 수료
- 1960년 국제펜클럽 한국본부 회원
- 1969년 한국출판학회 창립주도, 회장 취임
- 1970년 한국서지학회 간사
- 1978년 도서출판 광문서관 창립, 대표 취임
- 1984년 제1회 국제출판학술발표회 주동
- 1988년 미국 바이블대학(명예 인문학 박사)
- 1989년 (사)한국출판학회 명예회장 취임
- 1991년 제14회 한국출판학회상 수상(저술, 연구 부문)
- 1991년 범우출판장학회 이사장
- 1991년 제5회 국제출판학회회의에서 '서울 선언' 발의, 채택하게 함
- 1992년 제4회 중앙언론문화상 수상(출판공로 부문)
- 1992년 제3회 간행물윤리상 수상(제작부문)
- 1993년 서울 중앙대 부속병원에서 타계

남애 선생은 1969년 6월 '한국출판학회'를 창설했으며, 1982년 중앙대 신문방송대학원의 출판잡지 전공을 개설하는데 기여하고 그 곳에서 20여 년간 후학들을 양성했다.

그 이전에도 각 대학에서 일반교양학부나 언론분야의 학과에서 출판에 관한 학문을 강의한 출판학의 개척자였다. 이러한 남애 선생의 출판학에 대한 애정과 열의가 싹터 언론관계 대학원에서 출판잡지 전공이 생기고, 그 후 10여년간 출판학의 연구 실적과 거기에 수반하는 여러 분야의 성장 속도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빨라지게 됐다.

## 남애 출판학의 체계

남애 선생(이하 남애)의 학문적 업적

은 출판학과 서지학 두 영역에 걸쳐있다. 그러나 출판학과 서지학은 따로 떨어진 것이 아니라 한몸을 이루고 있다. 즉, 출판학에는 그 광대한 서지학적 지견이 중심사상을 이루고 있으며, 2개의 영역이 서로 상관관계 속에 얽혀 있다.

그러므로 남애는 출판학이라는 용어를 협의의 출판학과 서지학을 포함한 광의의 출판학 또는 출판연구의 의미로 사용했다.

남애의 광의의 출판학은 출판과정, 출판을 둘러싼 환경, 출판의 사회적 기능 등의 3가지를 연구대상으로 거론하고 있으며, 역사, 사회과학, 기술론, 인문·법학 등의 4가지를 연구방법으로 구사하고 있다.

어디에 중점을 두는가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는 있으나 이를 통해 각 연구대상과 방법에 따른 12개의 부차영역을 어떠한 형식으로든 다루었다.

글 이하는 남애의 출판학을 편의상 협의의 출판학과 서지학, 이를 통합한 광의의 출판학을 순서대로 설명키로 한다.

### 남애 출판학

1963년 을유문화사에서 출판된 '출판개론'은 남애가 출판학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발간한 최초의 저서라고 할 수 있다. 스탠리 언윈의 '출판의 진실(The truth about publishing)'을 토대로 한 이 책에는 출판학을 한국적인 이론으로 파악하고자 노력했던 남애의 시도가 처음으로 드러난다.

남애의 다음 저서 '출판사회학'(1969년)은 국가, 민족, 사회발전, 중

교, 교육, 문예 등에 대해 출판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또한 반대로 그러한 환경에 의해 어떠한 영향을 받아왔는가를 다루고 있다.

여기에서 '출판사회학'이라는 것은 연구대상으로서 출판과 사회와의 관계를 다루고 있다는 뜻이지 연구방법으로서 사회학적 방법을 원용하였다는 의미는 아니다.

다음으로 1981년에 남애는 '한국출판문화론'을 발표했다.

**남애는 동양서지학에 사적서지학이라고 하는 새로운 영역을 개척했다고 할 수 있다.**

**남애 서지학의 특색은 첫째가 사적서지학의 입장을 취했다는 점이고 두 번째는 서지학에서 다루고 있는 서적의 범위가 전통적인 서지학에 비해 매우 넓다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사적서지학은 서지학의 새로운 형식의 하나로서 보다 현대적인 관점에 답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책은 출판의 문화적 측면을 논한 것이 아니라, 출판활동과 출판문화를 동일시함으로써 출판문화, 즉 출판활동 전체를 여러 가지 각도로 조명했다.

그 내용에 대해 남애는 출판에 관련된 원리원칙, 출판현황 진단·해명, 현상의 비판, 출판의 역사적 해명 등의 4가지 주제가 들어있다고 스스로 밝힌 바 있다. 이상 3종의 저서는 출판학 각 영역의 입문을 위한 개설, 평론으로 평가된다.

1981년 간행된 '한국출판문화사대요'는 한국 출판의 역사를 통사적으로 다룬 작품이었다.

출판학, 출판사 분야 최초의 한국출판통사로서 이후에도 이 책을 능가하는 출판통사는 발간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1975년에 출판된 남애의 '현대 출판학 연습'은 출판교육의 문제를 정면으로 다뤘다.

이 책은 출판교육을 위한 연습교재로서 출판경영, 출판기획, 편집실무, 제작실무, 유통판매의 5가지 영역에 대해 실천적이고 구체적인 실례를 들고 있다. 이외에도 선생은 독서론, 서점경영론, 잡지출판론 등의 입문적 개설도 저술, 출판학의 기틀을 다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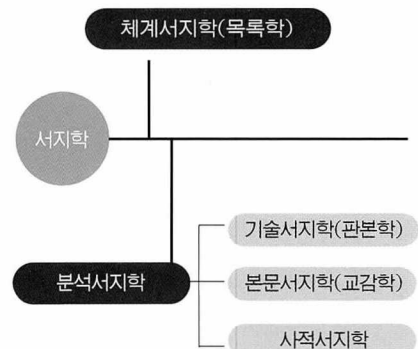
### 남애 서지학

서구식의 근대서지학 체계는 그림1과 같다. 그림의 괄호 안은 각각에 대응하는 동아시아 학문의 명칭이다.

한 권의 고전서적을 들어 분석지학의 방법을 이용하여 이판을 조사하고 이상적인 사본, 판본의 상태를 확정하여 기술하는 것을 '기술서지학(판본학)', 텍스트를 물적인 측면에서 연구하여

본문의 동정을 행하는 것을 '본문서지학(교감학)', 도서자료의 특징을 식별, 기술, 분류·배열하여 각종의 서지(목록)를 편성하는 것을 '체계서지학

〈그림1〉 서구식의 근대서지학 체계





1. 성균관대학시절(25세 무렵) 2. 1987년, 출판기념회 당시 가족과 함께 3. 1986년 동아출판공사 출판의 '한국고서평역' 출판기념회 4. 1988년, 일본 동경의 미노와 시게오박사 집에서. 5. 지난 1월 22일 열린 남애 안춘근선생 추모 10주기 학술제 모습. <제공 : 한국출판학회>

(목록학)', 하나의 물질로서의 도서 뿐만 아니라 그 도서의 생산, 유통, 이용에 관계되는 각 과정의 역사적 사실을 명확히 밝히고, 해당 도서자료의 본질을 추구하는 것을 '역사서지학' 이라고 한다. 위와 같이 서지학을 분류해 보면, 남애의 서지학은 바로 사적서지학으로 볼 수 있다.

남애는 서적의 물적 측면에도 관심을 가졌으나 동시에 그것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유통돼 이용됐는가 하는 출판의 전과정을 개관하면서 논했다. 이는 남애가 출판의 세계에서 출발한 그 관점에 기초하여 서지학을 바라보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런데 그림1에는 '사적서지학'에 대응하는 아시아의 학문이 없다. 이는 아시아 서지학에서는 전통적으로 사적서지학적인 연구가 없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남애는 동양서지학에 사적서지학이라고 하는 새로운 영역을 개척했다고 할 수 있다.

남애 서지학의 특색은 첫째가 사적서지학의 입장을 취했다는 점이고 두 번째는 서지학에서 다루고 있는 서적의 범위가 전통적인 서지학에 비해 매우 넓다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사적서지학은 서지학의 새로운 형식의 하나로서 보다 현대적인 관심에 답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1991년에 출판된 '한국서지학원론'은 남애 최후의 작품으로, 한국에서 서지를 배우고 연구하는 이들을 위해 발간된 서지학의 원리론을 정리한 개설서이다.

이 책은 1969년 작품인 '한국서지학'을 보완 발전시킨 것으로서 사적서지학적 관심에서 고서를 연구하는 것과 관련한 모든 사항에 대한 원리가 총망라되어 있다.

이외에도 도서관과의 관계를 다룬

'장서원론'도 빼놓을 수 없는 서지학 관련 저서다.

### 남애 출판학의 특색

남애 출판학은 크게 5가지 특색으로 분류될 수 있다.

#### 폭넓음

남애 출판학은 그 대상이 다채롭다. 출판과정에 대해 저술, 편집, 제작, 유통, 도서관, 애서, 서지, 독서, 경영을 논하였고, 출판환경의 면에서는 법률,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대해 언급했으며, 출판기능의 부문에서도 교과서, 종교서를 선두로 한 학술서적과 그 외의 영역들도 두루 살폈다. 학문적으로는 역사적, 사회과학적, 기술론적, 인문·법학적(규범학적) 접근이 모두 동원돼 있다.

#### 종합의 학문

이렇듯 출판현상의 거의 전 영역을 두루 논한 선생의 출판학은 종합의 학문으로서 관찰과 기술의 형태를 취했다. 과학성을 추구했으나 일반 과학논문의 분석적 스타일이 아닌 종합적인 관찰과 해석의 접근방법을 취하고 있다. 따라서 발표 형태의 논문보다는 저서의 형태가 주를 이루었다.

#### 신념의 학문

출판현상을 객관적으로 관찰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항상 출판의 바람직한 상을 상징하고 권고했다. 이를 통해 출판윤리가 논의되었으며 남애의 가치판단에 근거한 출판기능의 바람직한 상이 개진되었다. 다시 말해서 단순한 관찰을 넘어 일정한 가치관에 근거한 실천을 제창하고 있다.

#### 실증성

첫째, 남애는 출판기업에서 다년간

경험이 있었다. 서지학이나 도서관학은 출판사업의 경험이 없어도 가능하지만 출판학이나 출판서지학은 출판 실무 경험이 반드시 필요하다.

두 번째로 남애는 수많은 고서를 열람했으며 소장하고 있었다. 이렇듯 남애의 출판에 관한 논의는 실제로 책을 읽고 손에 대하는 것을 통해 그 실증성을 증대시켰다.

#### 선진성

남애는 항상 출판학의 선두역할을 해왔다. 종합적으로 각 영역의 기초 개념을 정리하고, 정서적으로 체계화하여 전개했다. 개별논문으로 선행연구를 비판하고 극복함으로써 학문을 일보 전진시키는 방법을 취하지 않았는데, 이는 선행이론이 없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남애는 각 영역의 개념 형성자

로서, 미개척의 영역에 끊임없이 도전했다. 이론의 전개를 개념형성기, 이론 도입기, 이론전개기, 이론발전기의 4 단계로 구분하였으며, 자신의 역할을 제1의 개념 형성에 두고 있었다.

### 남애 출판학의 국제적 평가

남애는 출판학이라는 새로운 영역에서 항상 선두에 섰고, 48종의 저서를 통해 출판학의 개념 형성에 노력을 경주했으며, 교육, 계몽에 커다란 성과를 남겨 출판학자라기보다는 철학자, 사상가, 문화인의 양상을 보였다.

또한 그 누구보다도 출판학의 국제 교류에 힘썼다.

남애의 제창으로 1984년, 한·일 양국간의 제1회 학술교류집회가 서울에서 열린 이래 출판연구국제포럼이 10

회에 걸쳐 아시아 각 국에서 개최됐다. 남애가 뿌린 씨앗이 착실히 성장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출판이라는 사회현상은 보편성과 동시에 각 지역문화라고 하는 특수성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또한 번역이라는 언어적 한계 때문에 남애 작품을 비롯한 한국의 위대한 출판역사가 외국에 거의 알려지지 못한 게 현실이다. 고찰자 인쇄역사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도 많지는 않다.

이와 같은 이유에서 남애 선생의 학문도 국제적으로 정당한 평가를 얻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다만 48종의 저작들과 저작들에 대한 각 나라 출판학계의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남애는 출판학계의 선구자로 영원히 남아있을 것이다.

조갑준기자 <kjcho@print.or.kr>

## 남애 선생 저작 목록

〈출판학〉	〈서지학〉	(을유문화사, 1974.6.10)/금언으로 본 삼국유사(광문서관, 1978.9. 15)/한국의 자랑 과연 그럴 만한가(광문서관, 1978.10.30)/지혜의 샘터 세계 예화선(광문서관, 1979.4.15)/역사에 빛나는 한국여성(범우사, 1984.12.30)/천자문 이야기(범우사, 1985.8.30)/동몽선습(범우사, 1986.5.10)/부모은중경(범우사, 1987.7.20)
양서의 세계(아카데미사, 1959. 3.1)/출판개론(을유문화사, 1963. 2.25)/출판사회학(통문관, 1969.6.15)/한국출판세사론(성진문화사, 1971. 8.25)/세계발행금지도서100선(서문당, 1974.4.10)/현대출판학연습(경인문화사, 1975.4.25)/출판실무편람(공저, 경인문화사, 1976.5.10)/한국출판문화론(범우사, 1981.11.30)/서점경영독본(한국출판판매주식회사, 1982.3.20)/한국 출판 문화사 개요(청림출판, 1987.5.30)/잡지출판론(범우사, 1988.11.15)/국제출판개발론(역저, 범우사, 1989.9.30)/출판비평론(공저, 보성사, 1990.9.5)/출판의 진실(청림출판, 1992.6.5)/잡지출판론(중국어판, 동방출판사: 북경, 1993.4)/눈으로 보는 책의 역사(공저, 범우사, 1997. 9.1)	애서시가(자가판, 1965.6.25)/도서장전(통문관, 1968.9.15)/한국서지학(통문관, 1969.11.25)/장서원론(성진문화사, 1972.2.25)/한국불교서지학(성진문화사, 1972.9.10)/한국불교서지학(일본어판, 동봉사: 동경, 1978. 12.15)/한국서지학논고(광문서관, 1979.9.25)/한국판본학(편역저, 범우사, 1985.5.10)/한국고서평역(동화출판공사, 1986.9.5)/한국서지학원론(범우사, 1990.9.20)/옛책(주식회사 대원사, 1991.1.30)/한국서지의 전개 과정(유고집, 범우사, 1994.4.30)	〈수필집〉 살구나무의 사연(동민문화사, 1963.1.15)/생각하는 인형(정음사, 1965.12.30)/남애령도기(성진문화사, 1974.6.24)/한국근대수필선(을유문화사, 1976.6.30)/책갈피 속의 연서(세운문화사, 1977.11.25)/언제 고향에 갈 수 있을까(유고집, 범우사, 1993.2.20)/책과 그리운 사람들(유고집, 범우사, 1998.1.20)
	〈교양〉 독서의 지식(신양사, 1959.10.20)/책은 누구나 쓸 수 있다(정음사, 1969.7.30)/세계사상교양사전(을유문화사, 1969.11.30)/세계명작의 뒤안길	